



이집트 제빵업계 파업 예고

(2013.3.1. 로이터통신)

원제: EGYPT BAKERS THREATEN STRIKE OVER RISING COSTS - RTRS

01-Mar-2013 03:00

Egypt recently tapped U.S. credit guarantees to buy wheat -USDA<BG.N><CARG.UL><LOUDR.UL> - RTRS 01-Mar-2013 07:48

이집트 민간 제빵업자 2만 5,000명을 대표하는 Abdullah Ghorab은 정부가 15일 안에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. 이집트 정부는 2011년 무바라크 전 대통령이 하야한 이후 2년 동안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경제위기가 발발할 상황에 처해있으므로 빵의 부족은 사회적 혼란의 도화선이 된다.

이집트는 세계 제 1위의 밀 수입국으로 제빵업계에 오랫동안 보조금을 지급해 왔으며 이로 인해 이집트에서 가장 저렴한 빵은 1센트도 안 되는 가격(5 piastres)에 판매된다. 제빵업계 대표에 의하면 이집트 정부는 제빵업계에게 4억 이집트파운드(5,934만 달러)를 6개월째 체납하고 있다고 한다. 이 금액은 제빵업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빵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불되는 인센티브 및 연료비용에 대한 보조금이다. 현재 이집트 정부의 채무는 GDP의 12.3%에 이른다.

한편 USDA에 의하면 이집트는 최근 2주 사이에 미국의 수출신용 프로그램인 GSM-102을 이용하여 1,770만 달러어치의 미국산 밀을 구매했다고 한다. 이는 단기융자로 원금과 이자 전체의 98%까지 대부가 가능하며 채무자가 지불불능상황이 될 지라도 채권자가 돈을 받을 수 있게 미국 정부가 보증한다. 이집트는 또한 이번 회계연도(미국기준, 10월~9월) 초 2,000만 달러어치의 대두유와 980만 달러어치의 대두를 이 수출신용프로그램을 통해 구입했다. 전년에 이집트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매한 곡물은 대두 9,830만 달러어치와 밀 1,310만 달러어치였다.